



광산구와 윤상원미술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 순회전이 광주·서울·부산·울산·수원 등을 거쳐 인천에서 마무리된다. 사진은 부산 전시 모습. <광산구청 제공>

전국에서 만나는 윤상원 열사

광주·부산·서울·수원 이어 마지막 인천 전, 17일~23일 인천문화회관
광산구·기념사업회 주최, 하성흠·김광례·성남훈·김지욱 작품 등 전시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에서 생을 달리한 윤상원 열사가 남긴 말이다. 광주민중항쟁 시민군 대변인으로 오월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를 기리고 5월 정신을 알리는 행보가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 오월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공감의 현장이고, 오월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진실과 역사적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의미있는 기획이다.

(사)윤상원기념사업회와 광산구가 공동 주최한 '글과 수묵, 사진으로 만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전이 광주, 부산, 울산, 서울, 수원을 거쳐 오는 17일 개막하는 인천 전시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던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하성흠의 수묵으로 그린 열사의 일대기'전이 중심이 된 전국 순회 프로젝트다. 윤상원 생가 터가 있는 광산구는 뮤지컬 등 윤열사 현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 2년 동안 윤 열사 일대기를 그림으로 남기는 기획을 추진해

왔다. 한국화가 하성흠 작가가 2년 동안 그린, 120호 크기의 윤 열사의 일대기 18점에는 유년기를 비롯해 들불야학, 시민군 대변인, 마지막 항쟁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초반의 타 지역 전시였던 부산전(9월23일~30일·부산진구청 백양홀)과 울산전(10월27일~11월5일 울산시청 로비)은 광주에서 열렸던 '역사의 피뢰침'전과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 때마다 최근 타계한 이태복 윤상원기념사업회장이 함께 하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윤상원기념사업회 등 전국의 사회 단체와 지자체들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울산전부터는 전시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사진, 영상 작업과 기념 공연 등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 오월 정신과 윤상원 열사를 알렸다.

오는 23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함께 한다. 1전시실에서는 하성흠의 수묵으로 그린 윤상원 일대기전과 김광례 조각가가 작업한 윤상원 열사 흉상 조소 작품이 전시되며 2전시실에서는 성남훈 작가의 사진과 김상집의 '윤상원 평전'으로 만나는 5월 그날



김광례 작가의 윤상원 열사 흉상

의 현장이 진행된다.

3전시실은 '열사의 일기로 보는 노동운동가 윤상원', 제 4전시실은 김지욱의 영상으로 듣는 '5인의 그날의 증인'으로 꾸며진다. 마지막 5전시실은 윤상원과 주용성의 아시아 현장 사진전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래'가 펼쳐진다. 노래마당에서는 이혜지(첼로), 박정민(피아노)로 구성된 '더울림'의 공연과 '윤상원과 5·18의 진실'을 주제로 한 이야기 마당도 열린다.

서울인사동 코트갤러리(11월17일~28일) 전시에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 가수 윤선애의 노래 공연이 펼쳐졌으며 수원컨벤션센터(12월1일~14일)에서 열린 수원 전시에도 윤선애와 최한솔이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카페 필로소피아 25주년 심포지엄

17일 은암미술관 김광수·황지우 등 강연...부대전시도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는 지난 1996년 학동에서 시작했다. 당시 전남대 철학과 교수였던 성진기 교수가 편안함과 안락함, 그 속에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마음에서 문을 열었다. 배토벤, 전남대 후문, 전남여고 앞 등을 거쳐 지금의 대인동까지 장소는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모여 인문학을 공부하며 대화를 인간의 삶에 대해 고민해온 여정은 변하지 않았다.



황지우 시인 최진석 교수

지금처럼 인문학 바람이 불기 훨씬 전부터 모임을 이어온 카페 필로소피아는 철학을 중심으로 문학, 역사 등 인문학 전반으로 확장하며 공부를 이어왔다. 또 회원 중심의 철학 스터디와 함께 '삶의 자유로의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왔으며 철학, 문학, 역사학을 아우르는 '인문학 Sale' 프로그램도 열려왔다. 그밖에 인문학 강의와 함께 음악 공연, 연극 무대 등을 곁들이며 예술의 향기도 전했다.

카페 필로소피아와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함께 준비한 카페 필로소피아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오는 17일 오후 1시~6시 은암미술관 2전시실에서 열린다.

더불어 이근표·진경우·김해성 작가의 철학적 이미지를 담은 작품 5점과 성진기 대표가 소장하고 있는 철학 이미지 30여 점을 만나는 전시는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염원하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피아노(김현욱)와 첼로(박효은) 연주로 시작한다. 레퍼토리는 김현욱 작곡가의 창작곡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과 '연가', '선들러리스트' 등이.

강의는 김광수 한신대 명예교수의 '철학, 그 거대한 외롭고 높은 갈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지낸 황지우 시인의 '누구나 시적 순간은 있다-나의 삶과 나의 시'가 펼쳐진다. 또 오양진 전남대 명예교수는 '사람의 마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새 말 새 몸짓 이사장)는 '행당만 건너가기, 인문의 길'을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밖에 종합토론과 성진기 대표의 카페 필로소피아 25년사 스케치도 마련됐다.

은암미술관은 다양한 전시와 함께 시민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 인문학 강좌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한국 니체학회 춘계학술대회 '니체, 노래하고 춤추다'를 개최하는 등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고 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근표 작 '물러가라 COVID'

일상 속 무수한 디자인의 단면들

디자이너 최지선 '단면'전, 23일까지 예술공간 집

'예술공간 집'이 진행하는 추천작가전은 순수미술에 편중된 지역 미술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를 발굴하는 기획으로 눈길을 끈다. 올해 3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디자이너 최지선 작가를 초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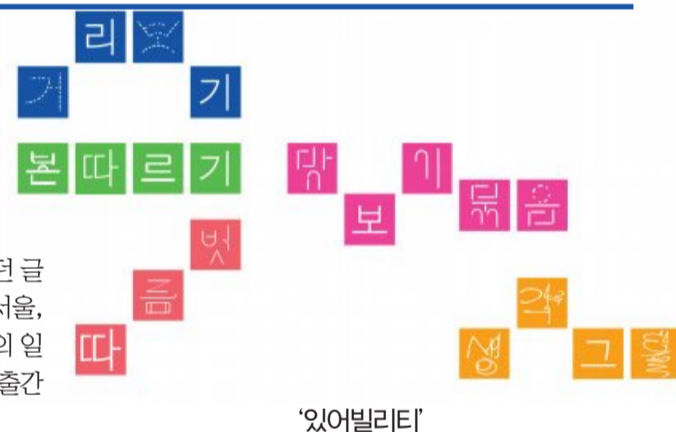
'Cross section, 단면'을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전시는 일상 속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획이다. 대학에서 북디자인을 전공한 최 작가는 개인 작업과 상업디자인을 아우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작가는 책이나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들을 디자인하며 상업디자인의 영역과 함께 달력, 엽서, 독립출판서적 등을 디자인하는 개인작업의 영역을 자유로이 넘나든다.

'즐겁고 재미있는 작업'을 위해 2019년 참여했던 글쓰기 수업 강사이자 글을 쓰는 김보라 작가와 탈서술, 탈이성애 등을 소재로한 단면 소설 4편과 49개의 일러스트가 모인 독립출판물 '무등산 수박등'을 출간했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단면을 만날 수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제작했던 리소인쇄 달력 이미지, '포스트잇', '더치페이', '커플룩' 등의 외래어를 우리말로 해석하여 '불인족지', '각자내기', '짜깁차림'으로 재명명한 텍스트 디자인 시리즈 '있어빌리티(有+ability)' 등 작가만의 독자적 디자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계원예술대학에서 북디자인을 전공한 최 작가는



'있어빌리티'

2015~17년 출판디자이너로 일했으며 2018년부터 디자인, 리소프린트 스튜디오 '사각프레스'로 활동중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삶디자인에서 리소프린트 수업을 진행했고 광주여성가족재단 가이드북 디자인, 광주비엔날레 작가스튜디오탐방 도록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오은영 박사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예스 24 '2021 올해의 책' 1위 선정

'2021 올해의 책'에 오은영 박사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가 1위로 선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도서 100권의 후보작에 대해 진행한 독자 투표에서 나타났다.

오은영 박사의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는 2만3145표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독자의 선택을 받았다. 육아 현실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현실밀착형 말 130가지를 빼곡히 담아 '부모의 말'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전한다. 또한 좋은 육아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를 포함한 독자들에게 격려와 위안을 전하며 출간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투표에서는 소설·시·희곡, 에세이, 어린이, 자기계발, 인문 등 8개 분야에서 총 24권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으며, 그 가운데 소설·시·희곡 분야 도서 6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